

‘핵의 아이들’ 아픔 달랜다

원폭피해 2세 환우전문요양원 건립 추진... 지자체 예산 고심

불교계 원폭 피해자 쉽터인 합천 평화의 집(원장 윤여준)과 합천군이 세계 최초로 원폭피해자 후손인 2·3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핵 피해국인 일본에도 없는 원폭피해자 2세를 위한 전문 요양시설이 한국에서 건립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 초 평화의집과 합천군은 건평900㎡ 규모의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이석권 시민사회비서관과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예산 5억원을 확보, 경남도에 증정자인 요양시설 건립을 신청했다.

증정자인 전문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전국 원폭피해자와 2·3세 증 장애가 심한 증정자인들이 우선 입소하게 된다.

한국 원폭피해자1세는 2010년 현재

2600여 명이 살아있고, 2세는 전국에 1만여 명이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2·3세들은 다운동후군,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암, 당뇨,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이 정상인에 비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원폭피해자 1세대와는 달리 원폭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한·일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어 정부 차원의 의료 및 생계, 각종 복지혜택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3월 1일 국내의 빈곤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단체 워드아시아대표 지원은 합천 평화의 집을 개원했다. 개원과 함께 장기 계획으로 ‘땅 한 평 사기’ 모금활동을 통해 합천 인근 부지를 마련, 원폭2세 환우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계획 추진했다.

전문요양시설 건립지 1만 3000㎡를 목표로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620㎡가 모금됐다. 땅 한 평 사기 운동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 등이 관심을 가지고 땅을 사면서 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도지사 김두관)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건립하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원장 해진 스님은 “지자체에서 승인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매년 7억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현행법에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한 지원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 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진 스님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으로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여준 원장은 “환우2세를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에서 모금운동을 해 주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땅 한 평 사기 운동’ 1구좌 1평에 5만원, 농협 301-0063-8703-2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이상연 기자

600여 일본 스님과 신도 한국을 찾다

조계사서 합동법회

한·일 대규모 합동법회가 10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철)는 일본 조동종 전국종무소장회와 함께 한·일합동 평화위원회회를 봉행하고 문화교류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일본 조동종 스님 272명, 신도 305명이 한국을 찾아 문화교류사업과 우정을 기원했다. 행사는 한국 의식과 일본 의식을 순서대로 진행했다.

오시오카 토오켄 조동종 종무소 회장 스님은 “모두 부처님의 같은 제자이며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일 불교가 자비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일본 대표적 불교 종파 조

동종은 일제 침략기에 일본 불교가 식민지 확장에 앞서 정치작업을 하는 등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한일강제병합 등 과거사를 반성하고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자의 유골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상연 기자



조계사 주지 토켄 스님(왼쪽)이 일본 조동종 전국종무소장회 회장 오시오카 토오켄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3000일 기도 그냥 할 뿐

서울구치소 최고수·불교여성개발원

“그냥 꾸준히 해왔을 뿐이다. 늘 똑같은 마음이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것은 오래 전이다.”

10월 22일 서울 구치소 최고수(사형수)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재소자교회센터 교정위원은 3000일 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재소자교회센터 교정위원들은 9년 전부터 한 달에 1-2번 빠짐없이 재소자들을 찾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했다. 각자 발원문을 쓰고 100일 기도로 시작해 인제와 회향을 동시에 하다 보니 1000일, 2000일 기도 정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때문 최고수 3명이 감형이 되는 경사도 생겼다. 사형수들과 함께한 시간 만 무려 10여 년. 거창한 무언가를 해도 좋을 법한데, 조용히 물 흐르듯 흘러보냈다.

윤순옥 교화센터장은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생긴 신뢰를 쌓아 올리는데 봉사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두 번 방문하고 마는 봉사는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센터장은 최고수나 재소자를 위한 봉사 자세의 기본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쌍하거나, 무서운 사람이라거나 하는 생각자체도 불필요하고, 공기처럼 늘 함께 기도하는 도반처럼 말이다. 이들은 이날 다시 1000일 기도 결제를 했다. 최고수들은 불법을 통해 불성을 깨치고, 깨달음을 얻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상연 기자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의지해서 말이다.

재소자교회센터와 재소자들은 법회 때에도 특별한 것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의식이나 정해진 틀 속의 수행을 하지 않는다. 평범하게 예불을 하고, 불공공부를 한다. 구치소 안에서 책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하는 그들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흔해서 특별히 알려주거나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 서로 대화 속에서 불교를 풀어내고, 바깥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늘 서로가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다였다.

윤순옥 교화센터장은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생긴 신뢰를 쌓아 올리는데 봉사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두 번 방문하고 마는 봉사는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센터장은 최고수나 재소자를 위한 봉사 자세의 기본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쌍하거나, 무서운 사람이라거나 하는 생각자체도 불필요하고, 공기처럼 늘 함께 기도하는 도반처럼 말이다. 이들은 이날 다시 1000일 기도 결제를 했다. 최고수들은 불법을 통해 불성을 깨치고, 깨달음을 얻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상연 기자

이주민들 전통한복 입고 불교식 혼례 치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김규범)과 (사)날마다좋은날·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10월 24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미륵전에서 다문화 가정·이주노동자 가정을 위한 무료 합동 전통혼례를 열었다.

이날 전통혼례에는 스리랑카·캄보디아·몽골·방글라데시 등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등 16쌍의 신랑신부가 참석했다. 이날 16쌍의 신랑신부는 모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불교생활의례문화원과 (사)날마다좋은날에서 이들을 위한 이불, 그릇세트, 수저세트, 속내의, 화장품 등을 전달했다.

신랑신부 16쌍의 부모들을 대신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신랑 측 어머니 역할을, 황채운 부회장이 신부 측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이광선 목사가 10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개막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함께 가자, 한마음으로’ 종교문화축제 성료

제14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10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됐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이광선)가 주최한 행사에는 불교·개신교·

가톨릭·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지도자들이 개막식에서 서로 손을 잡고 ‘사랑으로’를 합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개신교 대표 이광선 목사는 포옹까지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광선 목사는 “7대 종단에 속한 모든 종교인이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아

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한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종교의 공통 보편 가치인 사랑·나눔·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연 기자

제2회 원효학술상 공모

元 曉 學 術 賞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철학, 한국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상기 부문 중 자유선택)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1,000만원 혹은 논문상: 700만원
- 박사학위 이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
- 석, 박사과정 학생 3인 이내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

제출 서류

- 1) 지원서 1부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2) 저술 혹은 논문 1부
 -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 (200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0일까지)에 발표된 저술이나 논문에 한함.

접수 방법

- 1) 접수 기간: 2011년 1월 3일(월) ~ 2011년 2월 25일(금) 오후 5시까지
- 2) 접수 방법: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 유효)
- 3) 접수처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 719-2606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2011년 4월 말(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2) 시상식: 2011년 5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0. 11. 1.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단청분야의 대혁신!!!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포,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유일스님 문종의 수석말제자

불광미술원

단청, 탕화, 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